

신흥사 大光殿 壁畫의 考察

文 明 大
(東國大學校)

차 례

- | | |
|-----------------|----------------|
| I. 머리말 | IV. 신흥사 벽화의 意義 |
| II. 壁畫의 配置와 現狀 | V. 맺음말 |
| III. 壁畫의 樣式的 編年 | |

I. 머리말

신흥사 大光明殿 내의 벽에 총 83폭의 벽화가 보존되고 있다. 이들 벽화는 비록 여러시대에 걸쳐 제작된 것으로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는 사원벽화들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사원벽화연구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 건물보수공사에서 특히 보존처리하고 잇따라 보존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중이다.

여기서는 이들 벽화가 어떻게 배치되고 있으며 어떤 내용이 그려졌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후 들쭉 壁畫의 樣式을 밝혀 그 편년을 정하고, 세째 이들 벽화가 우리나라 벽화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며 그 의의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丹青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것은 이 논의에서 미비한 것과 아울러 별도의 논고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II. 壁畫의 配置와 現狀

大光明殿은 맞배지붕이다. 이 전각 내외벽에 총 83폭의 벽화가 남아있는데 그 대부분은 內壁에 있고 外壁의 벽화는 마멸때문에 약간만 남아있다. 內壁에는 南壁과 北壁 그리고 東(前)·西(後)벽의 상부포벽, 그리고 중심부인 後佛壁 등에 벽화가 있으며, 外壁에는 남·서벽 그리고 前벽인 동벽의 포벽에 벽화가 배치되어 있다.

1. 後佛壁畫

後佛壁의 앞면(前面)에는 현재 새로된 幀畫가 봉안되어 있는데 원래는 壁畫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좌우의 藥師, 阿彌陀後佛壁畫로 보아 靈山後佛壁畫로 생각되므로 3벽에 三佛壁畫가 그려진

〈표 1〉

		中央間	左(向)間	右間	포벽	기타
後佛壁	前壁	新作幀畫	원래 靈山後佛壁畫로 추정			原靈山後佛壁畫로 추정
	後壁	20세기作觀音圖				
東壁(前)	內壁	문	문	문	上, 下 포벽에 佛圖	
	外壁					
西壁(後)	內壁	문	문	문	上, 下 포벽에 佛圖	
	外壁					
南(側)	內壁	阿彌陀佛壁畫	八相圖와 八部衆	八相圖	좌우 각 1佛	
	外壁					
北(側)	內壁	藥師佛壁畫	八相圖와 八部衆	八相圖	좌우 각 1佛	
	外壁					

훌륭한 예로서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뒷면에는 觀音三尊圖 벽화가 있다. 검은 바탕에 흰선으로 그린 白線描의 벽화이다. 얼굴이 신체에 비해서 유난히 작으나 중앙 관음좌상은 신체가 당당하고 큼직하며, 좌우입상은 늘씬한 모습인데 이런 형태는 현대적인 기법이다. 天衣들에는 세밀한 무늬들이 묘사되어 있는데 일본적인 수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검은 바탕색, 형태, 天衣와 옷무늬, 의습선 등 모든 것이 20세기의 일본화풍의 영향을 받아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2. 南(右)壁의 壁畫

남벽은 중앙간과 좌우간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칸에는 3단으로 벽화가 그려져 있다.

1) 中央間の 阿彌陀佛 壁畫

중앙간의 벽화는 3단으로 구성되어있는데 각 단마다 가로, 세로로 2개의 버팀나무가 가로질러 가기때문에 각 단은 6등분 된다. 이 나무들은 상단과 중단의 경우 채색이 탈락되어 뚜렷이 노출된 경우가 많아 보기가 좋지 않은 편이다. 이들을 합치면 하나의 畫幅이 된다. 하단은 四天王, 중단은 6보살, 상단은 삼존불인데 중앙본존이 阿彌陀佛이므로 전화면은 阿彌陀佛壁畫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上, 中단의 阿彌陀八菩薩과 하단의 四天王像이 있으므로 불상위의 제자상, 化佛, 제석, 범천이나 八部衆등 작은 부수적인 상들만 생략되었을 뿐 阿彌陀後佛幀畫와 비슷한 화면이라 할 수 있다.

상단 중앙에는 阿彌陀佛이 結跏趺坐로 앉아있다. 머리는 신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는데 肉髻의 표현이 불분명하고 보편적으로 표현된 頂上髮髻가 없는 대신 중심계주를 불균형적으로 크게

나타내고 있다. 얼굴은 계란형이지만 눈고리가 좌우로 치올라갔고 코와 수염이 도식적이고 입이 작게 표현되는 등 말기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얼굴에 비해서 신체는 비대하고 긴장한 편인데 더구나 상체가 사각형적인데다 직각적인 어깨, 평판적인 가슴, 보다 폭이 좁은 무릎등으로 方形的 특징을 여실히 들어내고 있다. 허리를 가로질러 중방목이 지나가기 때문에 채색이 대부분 탈락되어 형태가 불분명하게 보인다. 오른손은 들어 엄지와 중지(中指)를 맞대었고 왼손은 내려 엄지와 중지를 맞댄 下品中生印을 짓고 있는데 손은 비교적 큼직한 편이다.

通肩한 대의(大衣)는 망토처럼 보이는데 옷깃에만 무늬가 표현되었다. 옷깃들도 넓고 구름모양 꽃무늬들도 큼직하며 선도 굵어 19세기의 전형적인 옷무늬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수법은 위봉 사후불탱화 등과 비교되므로 시대적인 특징을 잘 보여준다. 光背는 갖가지의 채색으로 별무늬를 새긴 반타원형인데 이 주위로 구름무늬를 그리고 있다.

왼쪽(向右)에는 觀音菩薩이 협시하고 있는데 왼쪽다리를 내리고 있어서 유희좌의 자세로 앉아 있는 것처럼 보이며 흰 천의를 머리에서부터 전신으로 내리고 있어서 白衣觀音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머리에는 너울형 보관을 쓰고 있는데 흰 천의 안쪽에 입은 붉은 천이 또한 올려져 보관을 이루고 있어서 보관자체가 높직하게 보인다. 관 전면에는 化佛이 있어서 관음보살임을 나타내고 있다. 얼굴은 풍만하고 복스러운 표정인데 눈이 치올라갔고 입이 작은 것이 다소 도식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것일 뿐 얼굴자체는 보살로서의 이상은 잘 나타나고 있다. 체구는 본존과 마찬가지로 당당한 편인데 왼쪽다리는 내려 半跏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이 다리는 유희좌처럼 자연스러운 편이다. 흰 천의(白衣) 밑에 입은 붉은 천의는 본존과 마찬가지로 옷깃에만 구름이나 당초형 무늬가 굵고 큼직하게 그려져 있어서 본존과 동시대의 같은 畫師에 의하여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다.

오른쪽 보살(向左)은 거의 비슷한 형태인데 화려하고 번잡한 꽃무늬 보관을 쓰고 있지만 정병은 명확하지 않다. 얼굴은 둥글고 풍만한 편이어서 관음보살과 비슷하다. 얼굴에 비해서 장대하고 우람한 체구는 본존과 비슷하지만 다소 둥근 맛이 나는 것은 보살을 상징하기 때문인 것 같다. 가슴과 양팔의 꽃무늬 영락장식은 화려하며 무릎의 장식과 함께 이 그림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시대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시 하체의 옷깃에는 당초무늬가 크고 굵게 묘사되어 본존이나 관음보살과 동일한 형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삼존상은 아미타, 관음, 대세지보살의 阿彌陀三尊佛이라고 생각되며, 따라서 전체 벽화는 아미타벽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삼존도 아래의 中段에는 6대보살이 입상으로 묘사되어 있다. 위의 삼존도 가운데 2보살과 함께 阿彌陀八大菩薩이 되는셈이다. 중앙에서부터 左·右로 文殊와 普賢, 地藏과 彌勒, 金剛藏과 除障礙菩薩 순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장보살상을 제외하고는 자세만 약간 다를 뿐 거의 비슷한 형태이다. 편의상 왼쪽보살상인 금강장, 지장, 문수, 보현, 미륵, 제장애보살 순으로 하나씩 살펴 보도록 하겠다.

金剛藏菩薩은 오른쪽(向左)으로 몸을 휘어지게 돌리고 있는데 둥근 원형두광 속에 화려하고 복잡한 보관, 신체에 비해서 작고 계란형인 얼굴을 나타내었고, 체구는 장대하게 묘사하고 있다. 보관은 상당히 정교하고 수식이 풍부하여 풍만한 얼굴과 함께 상당히 훌륭한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점은 목거리에서도 보이는데 두가닥의 큼직한 테두리로 된 이중 금목거리를 천의 위로 두르고 있으며, 양끝을 아름답게 장식한 특이한 목거리이다. 여기에 묶어 내린 리본이 무릎아래까지 길게 내려지고 있는데 오른쪽 천은 오른손으로 잡고 있다. 통견의 천의(天衣)는 풍성한 편인데 下衣 중심으로 내린 천의자락은 길게 뻗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2번째 지장보살상은 금강장보살과 마주보는 자세로 두건을 쓰고 있어서 금강장보살의 인상과는 다소 다르지만 얼굴은 비슷한 모습이다. 합장하고 있는 큼직한 손, 上天衣가 다른상의 진녹색과는 달리 붉은색인 것 등이 다른 면이다. 3번째 문수보살상은 금강장보살과 비슷한 자세와 형태인데 오른손을 가슴에 들었고 下衣가 하늘색인 것이 다른 점이기도 하다. 4번째 보현보살상은 좀더 오른쪽으로 휘어져있는데 오른손은 들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자세처럼 표현했고 왼손은 천의를 잡고 있으며 목의 영락장식은 천의안에 걸고 있다. 5번째의 미륵보살은 왼손에 여의(如意)를 잡고 있으며, 6번째 제장애보살은 두손으로 그릇을 잡고 있다.

	四天王 이름	泉隱寺四天王	신흥사四天王	신 라	비 고
1	東方持國天王像	칼	용	칼과 창	
2	北方多聞天王像	비파	칼	탑	
3	南方增長天王像	용	화살	칼과 창	
4	西方廣目天王像	탑	비파	붓과 책	

下段에는 3간으로 나누어져 四天王像이 배치되어 있는데 중앙에는 그 좌우에 각 1천왕씩 그려져 있다. 다른 예와 마찬가지로 東北, 南西天王으로 구분되기 때문에 중앙에는 東, 南, 좌우에는 北西天王이 되는 셈이다. 이들도 편의상 北東南西天王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多聞天王像은 왼쪽(向右) 상인데 오른쪽으로 향하면서 오른손 손가락으로는 텅기고 왼손으로 칼을 잡고 있는 자세이다. 얼굴에 비해서 신체가 장대하고 도식적이고 과장된 갑옷을 입고 있어서 신장상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고자 했다. 2번째상은 東方持國天王像으로 생각되는데 오른손에 용목을 잡고 오른쪽으로 몸을 휘고 있다. 3번째는 南方增長天王像으로 생각되는데 투구쓰고 갑옷입은 상이며, 두손 화살촉을 잡고 있다. 4번째 西方廣目天王像은 비파(琵琶)를 뜯고 있을 뿐 다른 天王像들과 마찬가지로 지이다. 이 四天王像의 순서는 천은사 아미타후불탱화 등 조선조때의 많은 四天王像과는 다른 편인데 그러므로 배치순서가 잘못되었는지도 알수 없다. 이 四天王像은 부석사사천왕상과 비슷한 것도 있어서 좀더 검토해볼 여지는 있을 것이다.

2) 左間(向右則)의 벽화

왼쪽칸에는 上, 下 2단으로 나누어져 벽화가 그려져있는데 상단에는 八相圖의 雙林涅槃像과 하단에는 八部衆, 가운데 四神將이 배치되어 있다.

하단의 4부중의 경우 반대편이 오른쪽 칸(左側) 하단에도 4부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아미타불벽화의 8부중으로 생각된다. 윗부분에 날개달린 구반다(鳩槃荼)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오른쪽(向左)에 대왕형태의 天과 摩睺羅, 그리고 象王이라 쓴 코끼리 등이 묘사되고 있어서 佛陀八部衆과 四天王八部衆 등이 혼합된 8부중 가운데 4부중이 묘사되어 있는 셈이다.

상단포벽에는 八相圖 가운데 雙林涅槃圖가 묘사되어 있다. 소나무처럼 묘사된 나무 두그루가 마주보면서 휘어진 그늘 사이에 침상이 놓여있고 침상위에 오른손으로 팔베개하고 누워있는 부처님 모습이 보인다. 3각형의 육계와 얼굴, 右肩偏袒의 붉은 大衣를 입고 있는 점등이 눈에 띈다. 침상뒤로 부처님의 열반을 슬퍼하는 4분의 제자가 배치되어 있다. 젊은 비구, 늙은 비구, 젊은 비구, 늙은 비구로 교대배치된 이들은 목을 움추리고 애절한 표정을 지으려 하고 있다. 침상 앞 화면의 전경에는 눈을 동그랗게 뜬채 웅크리고 앉아있는 사자 한마리와 뱀(?) 두마리가 묘사되어 있다. 비록 구도가 단순하고 필력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벽화로 그려진 八相圖는 희귀한 편이어서 귀중한 자료로 생각된다.

3) 右(向左) 側間의 壁畫

오른쪽 벽면도 역시 상단의 포벽과 하단 벽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단벽면에는 神衆幀畫가 봉안되어 있을 뿐 벽화는 알수 없다.

상단 포벽에는 上 1佛과 이 아래 2보살 등 모두 三尊佛이 배치되어 있다. 위의 불상은 보다 큼직하여 主尊佛로 생각되지만 다른 두 상은 형태나 수법이 거의 흡사하지만 손에 기다란 꽃을 들고 있어서 보살로 생각되므로 삼존불인 것 같다.

합장하고 있는 스님과 공양 올리는 동자상이 있으며, 그 뒤로 산들이 보이고 있어서 八相圖의 설법상이나 修道相의 장면으로 생각된다.

3. 北(左)壁의 壁畫

왼쪽 벽(向右壁)에도 오른쪽 벽(向左壁)과 동일하게 中·左·右間에 나누어 벽화가 그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각 칸의 상단에만 그림이 남아있을 뿐 다른 벽면에는 일부만 남아있다.

1) 中央間의 壁畫

중앙칸은 오른쪽 벽 중앙칸의 벽화와 마찬가지로 3단으로 구성되었는데 中·下단의 벽화는 탈락되고 없으며, 왼쪽 칸 하단은 문이어서 벽화가 생략되었고 오른쪽 칸의 벽 일부에만 人形 사자상이

그러져 있을 뿐이다.

중앙 칸의 상단에는 삼존불이 그려져 있는데 右壁中央間 상단 삼존불과 여러 면에서 대비되고 있다. 중앙 본존불은 색색으로 나타난 光線形의 舟形舉身光背를 배경으로 걸가부좌의 자세로 앉아 있다. 머리의 肉髻는 뾰족한데 끝에 흰 寶珠를 묘사하였고, 중앙에는 반달모양 중앙계주가 희게 묘사되어 있어서 오른쪽 벽 중앙 본존불의 낮은 육계와 반대되는 현상이다. 얼굴은 둥근편이지만 눈고리가 좌우로 올라갔지만 우벽중앙불과 비슷한 편이다. 얼굴에 비해서 훨씬 거대한 이 불상은 어깨가 직선적이고 상체가 사각형적이어서 方形의 특색을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다. 오른손은 들었고 왼손은 배에 대어 손에 약그릇(藥器)을 올려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통견(通肩)한 大衣는 붉은 바탕색인데 옷깃에만 무늬를 표현하고 있다. 이 무늬는 보상화무늬의 변형으로 구름무늬에 가까운 편이지만 옷깃도 넓고 무늬도 굵어서 오른쪽 벽의 옷깃 무늬와 잘 대비된다. 안에 입은 승각기는 수평적이며 띠매듭도 꺾 도식적이다. 대좌는 覆, 仰蓮으로 구성된 둥근 연꽃대좌이다.

왼쪽보살상(向右菩薩)은 풍만한 얼굴, 화려한 보관, 정교한 장식무늬, 장대한 체구 등 오른쪽벽 삼존불의 보살상과 매우 흡사한 편이다. 두손은 연꽃이 달린 연줄기를 조심스럽게 받쳐들고 있는 수인은 다르며, 보관에 붉은 둥근무늬가 큼직하게 그려져 있어서 붉은 해를 상징하고 있다.

오른쪽 보살상(向左菩薩像)은 왼쪽 보살상과 흡사한 모습과 특징을 보여주지만 보관에 그린 희고 둥근 달, 두손에 연꽃대신 如意를 받쳐든 자세 등만 다른 면이다.

이 삼존불화는 중앙 본존불의 藥器印, 좌우보살 보관의 日光, 月光표시 등으로 보아 藥師佛과 日光, 月光菩薩의 藥師三尊佛畫가 거의 확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단은 6대보살상 하단에는 藥師十二神將像이 배치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왼쪽칸(向右間)의 포벽에도 八相圖가 있는데 踰城出家相이다. 화면의 앞면에 성곽이 보이고, 성곽앞에 두 종자를 거느린 말탄 왕자가 있다. 성곽너머에는 애통해 하는 사람들이 있으며, 그 뒤로 바위위에 앉아 삭발하는 태자를 묘사하고 있다. 이른바 성을 넘어 出家해서 수도하는 장면까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오른쪽 상단 포벽에는 兜率來儀相이 묘사되어 있다. 하단 왼쪽에 치미가 있는 기와집이 있는데 안에는 마야부인이 시녀를 거느리고 있으며 하늘에는 태자가 권솔들을 이끌고 구름을 타고 내려와 가느다란 흰줄을 타고 마야부인 배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8상도 가운데 이 도솔래의 상이 이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오른쪽으로 돌면서 유성출가상, 설산수도상 또는 쌍림열반상 순으로 배치되어 八相圖의 진면목을 알려주고 있을 뿐더러 八相圖壁畫의 희귀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

下段의 오른쪽에 八師子王이라 쓴 입상이 있는데 하체는 탈락이 심하지만 원 모습은 알 수 있다 양쪽 귀뒤에서 붉은 머리칼이 위로 뻗쳐올라 갔으며 얼굴은 작지만 치켜올라간 눈, 八자의 붉은 입등 험상궂은 인상을 표현하고자 했으나 썩 잘 표현된 것은 아니다. 얼굴에 비해서 장대한 체구지만 옷주름을 구불구불하게 처리하여 우람한 면이 감소되고 있다. 왼쪽 어깨 위 머리옆에 1/4만 남은 둥근 흰달이 있는데 가운데 “月”이라 쓰여진 글자가 보인다. 이 달은 손으로 잡고 있어서 손가락이 보이므로 다른상의 손으로 생각된다. 이상은 8부중의 하나일 가능성이 농후하지만 전체

적인 구도는 알 수 없다.

4. 包壁의 壁畫

4방 벽의 포벽에는 각기 1구씩의 佛벽화가 있다. 좌우 벽에는 2구씩 모두 4佛이 있지만 전면(東벽)에는 上, 下포벽에 각기 1구의 佛畫가 있고 후면(西벽)에도 각 포벽에 1佛씩의 벽화가 남아 있다.

정면과 측면의 상부 포벽은 4각형이며, 이 안에 1佛씩의 벽화가 그려져 있다. 전면상부 포벽의 불상은 나발의 머리칼, 삼각형의 낮은 육계, 반달형 중앙계주, 삼각형의 얼굴, 직각의 어깨, 方形의 신체, 가슴에서 함장한 수인, 황토색에 가까운 통건한 大衣, 둥근 신광과 두광, 연꽃대좌 등 대개 비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전면의 하부 포벽은 凸형의 변형인데 이 안에 불상이 그려져 있다. 나발의 머리칼, 삼각형의 육계, 삼각형의 얼굴, 각진 어깨, 사각형의 체구, 둥근 광배와 연꽃대좌 등 모든 면이 상부포벽 불상과 흡사하지만 얼굴과 신체가 좀더 긴것이 다르며, 수인에서도 이 불상은 함장하지 않고 오른손은 어깨까지 들었고 왼손은 무릎위에 얹어 손가락들을 구부리고 있는 점이 다르다. 이 수인은 아미타 9품인과 유사하지만 손가락의 변화이지 아미타 9품인과는 다른 것이다.

후면 포벽의 불화도 전면 하부포벽불화와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5. 기둥과 기타 나무그림.

기둥과 창방등은 물론 벽상부와 천정 부위 등에는 기하학적 단청무늬와 함께 갖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어서 佛殿을 극도로 장엄하고 있다.

이 가운데 후불벽 기둥에 5존씩의 불상이 세로로 각 네줄씩 모두 25구가 그려져 있고, 이 사이는 구름과 연꽃 등 무늬로 채우고 있다. 불상은 하부포벽의 불상과 흡사하지만 좀더 둥근 편이고 손은 두손을 얼굴이

포벽 사이에 있는 무늬나 용 등은 활기차고 세련된 필력을 보이고 있어서 주목되며 천정 각부에 표현된 단청무늬는 상당히 뛰어난 면을 나타내고 있어서 단청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6. 外壁의 壁畫

외벽은 양쪽 側面만 있는데 양쪽 모두 상부에만 벽화가 남아 있다. 이들 벽화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어서 탈락이 심하여 불확실한 면이 많지만 그래서 좀더 古格스럽게 보인다.

西壁인 왼쪽벽(向右側壁)의 상부에는 주로 奏樂天들이 묘사되어 있다. 向左도 여성형이고 向右 2天은 남성형인데 法鼓를 두드리는 장면을 풍만한 형태, 활달한 필치로 나타내고 있다. 向右칸에

는 학을 타고 날아가는 仙人을 묘사했는데 늘씬한 학의 묘사는 일품이다. 向左側 간에는 3인의 공양여인상이 묘사되어 있는데 세부 형태는 불확실하지만 중앙간이 벽화들과 흡사한 특징을 보여 준다.

서벽인 向左壁에도 상부에 벽화가 남아 있는데 너무 높고 탈락이 심해서 형태를 완전히 파악할 수 없다. 중앙간의 벽화는 여러 명의 天人이 보이고 向左側 간에는 공양하고 있는 듯한 女人像이 그려져 있다. 신체는 방형적이지만 얼굴은 풍만한 편이며, 필치는 단정한 편이다.

7. 外包壁의 壁畫

외포벽은 전면에 7점이 있다. 각 포벽에는 花鳥畫가 묘사되어 있는데 상당히 뛰어난 솜씨를 나타내고 있다. 각각의 꽃에도 두마리의 새가 그려져 있는 셈인데 색은 변색되었지만 그려졌을 당시 보다 고격한 맛은 더 좋은지 모른다.

하나는 매화꽃같은 꽃가지에 앉아 고개를 쳐다보는 새인데 긴 꼬리가 공작새처럼 보인다. 꽃은 붉고 잎은 녹색이며, 새는 주로 흰색 위주로 그려져 있어서 구별하기 쉽게 했다. 또 하나는 잎이 길죽길죽하고 꽃은 크고 풍성하여 모란처럼 보인다. 다른 하나의 꽃은 잎이 수박잎처럼 작는데 비하여 꽃은 의외로 큼직한 것도 있고 넓은 연잎사이에 활짝 피었거나 봉우리가 터질듯한 것 또는 봉우리로 있는 것등 각종 연꽃을 화려하게 나타내었는데 작고 예쁜 물새가 연밭을 쪽고 있는 것도 있다.

Ⅲ. 壁畫의 樣式的 編年

지금까지 살펴본 벽화의 현상과 형식을 통하여 樣式的特徵과 編年까지도 어느정도 밝혀졌다고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다른 불화들과 비교하면서 이 점을 간단히 요약하고자 한다. 물론 보수되고 후보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여기서는 이런 점도 살펴보겠다.

좌우측면벽에 그려진 藥師後佛壁畫와 阿彌陀後佛壁畫가 이 신흥사 大光殿 벽화의 주류이며 중심되는 작품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좌우 벽화들은 肉髻나 手印등 세부형태만 약간씩 다를 뿐 전체적인 면은 동일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동시에 살펴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첫째 형태면이다. 약사본존불의 큼직한 나발, 특이하게 높은 육계와 그 위의 계란형 정상계주, 반달형 중앙계주, 풍만한 얼굴과 치올라간 가는 눈, 작은 입과 특이한 수염 그리고 건장한 체구와 직각형 어깨, 수인과 결가부좌의 발 형태 등은 1687년작 雙溪寺靈山殿 靈山會上圖 本尊과 상당히 유사하다. 또한 方形의 건장한 상체나 수인등을 제외하면 1653년작 華嚴寺靈山會上圖와 상당히 비슷하며, 특이한 육계나 수인만 제외하면 1649년작 菩薩寺靈山會上圖 本尊등과 일치하는 형태이라 할 수 있다.¹⁾ 좌우 협시보살의 풍만한 측면얼굴은 쌍계사 문수·보현보살상 얼굴과 거의 일치

1) 文明大 감수 『朝鮮佛畫』 中央日報社, 1984 圖 1-6 및 pp. 206~207 참조.

하며, 6보살상의 형태 역시 쌍계사 다른 보살상과 흡사하게 표현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四天王像도 서로 유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 색채면이다. 옷깃무늬외에는 붉은 가사가 황토색 빛이 다소 나는 중간색조는 보살사영산회상도와 유사하며, 쌍계사영산회상도와도 비슷한 특징을 보이면 옷깃에 표현된 구름같은 꽃무늬와 광배의 색동저고리식 다양한 색조의 배합은 역시 쌍계사영산도 광배와 화엄사 괘불탱 본존 광배와 비슷한 것이다.²⁾

셋째 전 화면에 사용된 필치는 상당히 유려하고 깔끔하여 1687년작 쌍계사영산회상도의 선묘와 상당히 유사하며, 물론 1653년작 화엄사괘불탱과도 비슷한 것이다.

넷째 무늬의 특징이다. 옷깃의 구름같은 꽃무늬의 특징있는 무늬와 피어나는 듯한 색조는 역시 쌍계사영산도와 화엄사괘불영산도와 거의 비슷한 편이며, 화엄사영산도와 좀더 닳은 것 같다. 보살상과 四天王像의 보관과 가슴·어깨등의 영락, 무릎과 어깨등의 중첩한 구슬같은 장식무늬는 1649년작 보살사영산회상도의 보살이나 사천왕상의 무늬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은 쌍계사영산회상도의 보살·사천왕상등에도 분명히 보이고 있다. 물론 1700년대의 불화에도 보이고 있지만 18세기의 무늬는 17세기의 것보다 말기적이거나 퇴화된 것이어서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광배의 색색의 광선무늬는 명도와 선도는 물론 좀더 다양한 색조등은 17세기의 불화광배 가령 쌍계사영산도나 화엄사영산도등에 표현된 특징과 보다 흡사한 것이어서 이런 점에서도 17세기불화와 유사점을 밝힐 수 있는 것이다.³⁾

이상에서 보이다시피 1650년 전후에 조성된 불화 가령 菩薩寺靈山會上圖(1649년작), 華嚴寺靈山會上圖(1653년작) 雙溪寺靈山會上圖(1687년작) 등과 상당히 유사하므로 17세기 후반기(1650~1700년) 특히 17세기 3/4분기 경에 제작되었다고 보면 그렇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처럼 신흥사벽화는 다른 불화와 비교 고찰을 통하여 17세기 후반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데 이 점은 重修銘文인 銘文막새기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順治十年이라는 기와銘文이 많은 막새기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順治十年은 1654년이므로 아마도 1654년에 대대적인 건물중수가 이루어졌을 것이며, 대부분의 벽화도 이 당시에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외벽의 벽화나 포벽의 불상도 그리고 외포벽의 花鳥圖 등도 이 당시에 제작된 것이 분명한 것 같다. 그러나 내부포벽 불상과 오른쪽 벽 하단의 8부중 등에는 후보의 흔적이 보이고 있어서 중수의 시기는 좀 더 후대로 생각된다.

IV. 壁畫의 意義

신흥사 벽화는 여가지지 의미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 같다.

2) 文明大 감수 『앞책』 圖 1-6 참조.

3) 文明大 「朝鮮朝 釋迦佛畫의 研究」 『朝鮮朝 佛畫의 研究』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5년 pp. 3~21.

4) 朝鮮朝 後期 佛畫의 編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文明大 「朝鮮朝 佛畫의 양식적특징과 변천」 『朝鮮佛畫』 中央日報) 참조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이 작품의 제작년대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이 벽화는 조선조시대의 본격적인 불화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더구나 다종 다양한 불화들이 전각 내외벽면에 전면적으로 그려져 있어서 우리나라 벽화의 대표적인 예로 평가된다는 것이다.⁵⁾

둘째 중앙의 본존후불벽화는 없어졌지만 좌우벽면에 후불벽화와 거의 비슷한 藥師後佛壁畫, 阿彌陀後佛壁畫가 배치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조 때의 큰 大雄殿에 봉안되던 三佛畫 등과 동일한 형식인 것이다. 이러한 삼불화는 탕화로서는 상당수되지만 벽화로서는 범어사 대웅전 삼불화밖에 없는데 범어사의 경우 좌우벽 상단에 藥師, 阿彌陀三尊圖 밖에 없으므로 이 벽화와는 비교할 수 없다. 어쨌든 三佛壁畫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될 수 있는 것이다.⁶⁾

세째 각벽면의 좌우 포벽에 八相圖가 그려져 있는데 이처럼 8상도가 벽화로 남아있는 경우는 이것이 유일한 예로 확인되므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釋迦, 藥師, 阿彌陀의 三佛壁畫와 八相圖 등의 벽화내용으로 보아 이 전각은 석가불을 주불로 하는 大雄殿이 분명한데 현재의 현판은 “大光殿”이라 하고 있다. 大光殿의 뜻은 大光明殿 또는 大寂光殿의 “明”자나 “寂”을 뺀 명칭이라고 생각되므로 이 불전을 毘盧舍那佛을 주불로 봉안한 大光明殿의 뜻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앞에서 보았다시피 이 佛殿은 그 내용상 大雄殿이 분명하므로 雄을 光으로 잘못 後補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이 벽화는 17세기 후반의 작품으로 編年되므로 몇 남아있지 않은 조선조 후기벽화 가운데 가장 이른시기의 대표작으로 평가되며 아울러 우리나라 壁畫研究에 매우 귀중한 자료로 높이 평가된다는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신흥사 大光(雄)殿 내외 벽면에 빈틈없이 그려진 벽화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밝혀보았다.

첫째 좌우벽면에 後佛畫와 동일한 藥師·阿彌陀後佛畫라는 점을 밝혔으며, 각 벽면 모서리 포벽에 八相圖, 각 내부 포벽에 佛像圖 외포벽에 花鳥圖, 좌우외벽에 공양 및 찬양도 등이 그려져 있는 것을 살펴 보았다. 둘째 이들 벽화들은 거의 대부분 17세기 후반기의 불화 가령 보살사영산회상도(1649년), 화엄사괘불영산회상도(1653년), 쌍계사영산회상도(1687년) 등과 흡사한 시기의 걸작으로 판단된다는 것을 밝힐 수 있었던 것이다. 셋째 이 벽화는 조선조 후기의 많지않은 벽화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인데 특히 釋迦, 藥師 阿彌陀三佛壁畫로써 거의 유일한 예이며, 八相圖나 花鳥圖 등도 당대 일류의 걸작으로 이 벽화의 의의는 심대하다는 점도 밝혀 내었던 것이다.

5) 朝鮮朝의 壁畫研究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할 수 있다.

朴挑花「朝鮮朝의 寺院壁畫」『朝鮮佛畫』中央日報, 1984, pp. 198~205.

6) 석가, 약사, 아미타 三佛畫는 고려시대에 이미 출현했는데(東文選) 조선조시대에도 이런 예가 많이 보이고 있다(文明大「朝鮮朝 釋迦佛畫의 研究」한국정신문화연구원 p. 1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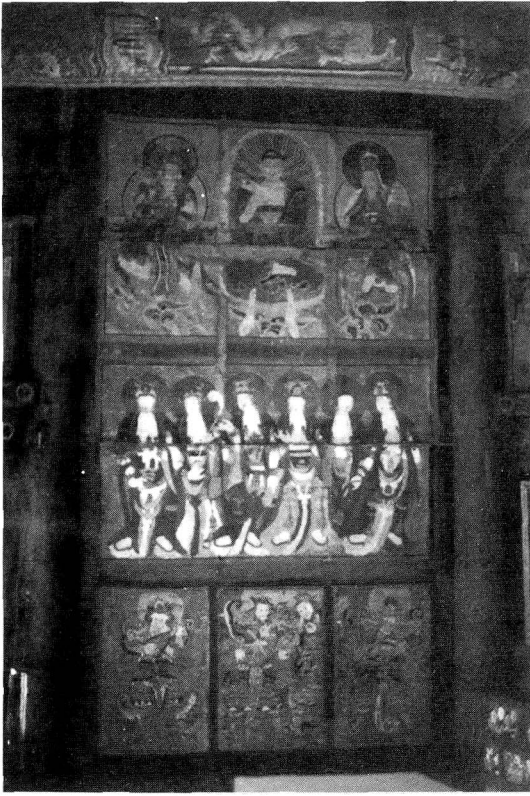


圖 1. 南壁 阿彌陀佛壁畫



圖 2. 阿彌陀三尊佛 壁畫



圖 3. 阿彌陀佛壁畫 8大菩薩圖



圖 5. 8부중



圖 6. 8부중



圖 4. 阿彌陀佛壁畫 4天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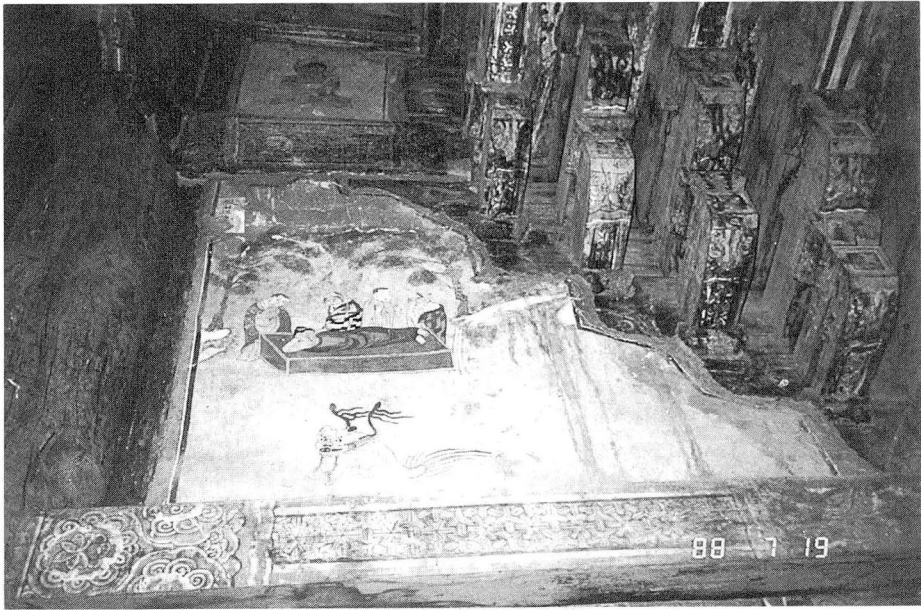


圖 7. 南壁 8相圖(雙林涅槃相)



圖 8. 藥師三尊佛畫



圖 9. 内包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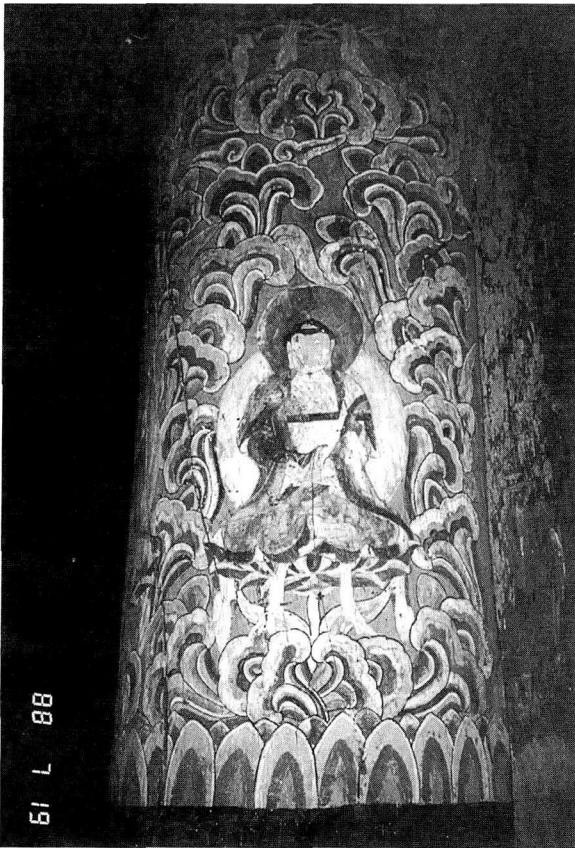


圖 10. 기둥 壁畫 化佛